

## 20세기 전반 어느 전씨(田氏) 일가의 아시아 이주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윤대영(尹大榮)

전통 시대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중국, 일본, 유구 등을 제외한다면 외부 세계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특히 한일병합(1910) 이후에는 다양한 동기로 이웃한 아시아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는 본격적인 이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주의 범위는 중국이나 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오늘의 세미나는 20세기 전반에 중국, 홍콩 등지를 거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정착하게 된 전씨(田氏) 일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20년대 후반에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홍콩에서 인삼 장사를 시작한 전성화는 곧 가족과 함께 베트남의 하이 풍, 하노이 등지로 정착지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홍콩과 베트남의 학교에 다니며 현지어와 현지 문화를 체득한 두 아들, 장남 전영순과 전성화는 부친의 사업을 도우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평안북도 출신 전씨 부자들의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1940년대 전반 격동기 인도차이나의 현실과도 직면하여 불행한 가족사로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파리7대학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았다.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서강대 동아연구소를 거쳐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에는 <<마주보는 두 역사, 인천과 하이 풍>>(2010), <<1897-1911년, 한국과 베트남의 개혁사상과 개혁운동>>(2011, 불문), <<1862~1945, 한국과 베트남의 조우>>(2013, 공저), <<베트남 현대사: 통일에서 신공산주의로 1975-2001>>(역서) 등이 있다.

일시: 2021년 11월 30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